



보도시점 2026. 5. 6.(수) 17:30 배포 2026. 5. 6.(수) 13:00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 모색”

임기근 기획처 차관, 게이트 재단 대외협력 총괄이사 접견

- 해외 개발협력 주체와 직접 소통하며 ODA 효율화 방안 모색
- “민간의 혁신역량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개발협력의 핵심”

임기근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 차관은 ‘26.5.6.(수) 조 세렐(Joe Cerrell) 게이트 재단* 대외협력 총괄이사를 접견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8월 게이트 재단 설립자 빌 게이츠 이사장이 방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글로벌 보건 및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그 후속 논의를 위해 이번에 세렐 총괄이사가 방한했다.

* 세계 보건·교육·빈곤 감소 목표로 빌 게이츠가 2000년에 설립한 세계 최대 민간자선단체

임기근 차관은 게이트 재단이 글로벌 보건과 및 지속가능개발 분야에서 혁신적 접근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재단의 재원을 축대로 민간자금과 기술을 결합하는 협력 방식은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모범사례라고 언급했다.

조 세렐 총괄이사는 한국이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드문 사례로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정부가 ODA 지원 확대를 통해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임 차관은 개발원조의 지속적인 확대도 필요하지만 재원의 전략적 활용과 실질적 성과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는 기술·경험·네트워크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발협력이라고도 덧붙였다.

양측은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라이트재단)*’ 등 한국과 게이트 재단 간 글로벌 보건 협력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재확인하는 한편, 여타 분야에서도 기업·시민 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유망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 라이트 재단(Research Investment for Global Health Technology Foundation): 국제 보건 형평성을 향상하는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보건복지부), 게이트 재단, 한국 생명과학 분야 기업 3자 간 협력을 통해 설립된 민관 협력 비영리재단

이번 임 차관의 재단측 고위 인사 접견은 해외 개발협력 주체들과 직접 소통 하며 우리 ODA 정책방향을 알리고 한국 기관·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인 자원 운용을 도모하려는 현장 중심형 예산당국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기획처는 한국의 ODA가 더 필요한 곳에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외교부 등 ODA 주관부처와 협력해 예산집행·성과관리 전(全)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예산안 편성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 이다.

첨부: 면담 사진(별도 배포)

담당 부서	재정참여정책관 국제재정협력과	책임자	과 장	황유실 (044-214-1930)
		담당자	사무관	윤영준 (yoonyj95@korea.kr)
	행정국방예산심의관 행정외교예산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044-214-3130)
		담당자	사무관	기도형 (kkdh0309@korea.kr)

